



라파, 전주대에 발전기금 1000만원 전달

사단법인 라파(이사장 유선이)가 19일 전주대학교에 발전기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주대에 따르면 유선이 이사장과 박진배 총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본관 4층 접견실에서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사단법인 라파는 지역사회의 건강과 사회 구성원 행복 추구 등의 장학사업을 위해 설립된 장학재단으로, 지난해부터 발전기금 기부를 이어오고 있다. 유선이 이사장은 "전주대학교의 복음화와 크리스천 리더를 세우는 데 귀하게 사용되길 바란다"고 기부 의사를 전했다. 이에 박진배 총장은 "전주대학교와 학생들을 사랑해 주신 마음으로 감사드리며, 맡겨 준 소중한 장학금을 세상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온전히 쓰일 수 있게 하겠다"고 답했다. /장은성기자



무주농협, 찾아가는 이동상담실 운영

무주농협(조합장 곽동열)은 지난 19일 본점 2층 대회의실에서 여성농업인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협 이동상담실을 운영했다. 농협 이동상담실은 농업인이 영농 및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소비자피해 등의 고충을 분야별 전문가가 농촌현장으로 찾아가 강의와 상담을 통해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는 현장 중심의 농업인 실익증진사업이다. 이날 이동상담실은 대한법률구조공단 김진희 강사를 초빙해 '알아두면 힘이 되는 생활법률(유인과 상속)'을 주제로 강의와 개별상담이 이루어졌으며, 한국소비자원 김광진 강사를 초빙해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사례' 강의를 진행했다. 곽동열 조합장은 "생활법률 교육 및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이동상담실을 운영하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농업인의 실익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김제시보건소, '사랑의 헌혈'로 생명나눔 실천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난 18일 시청 민원종합실 앞에서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과 함께 '사랑의 헌혈'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과 공동으로 실시한 이번 '사랑의 헌혈'은 지역 내 헌혈문화를 전파하고 고귀한 생명 나눔을 실천하기 위함이다. 시는 분기별로 사랑의 헌혈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날 실시된 헌혈 행사에는 공무원 및 시민 30여 명이 적극 참여했다. 헌혈은 수혈이 필요한 사람에게 대가 없이 자유의사에 따라 자신의 혈액을 기증해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아름다운 실천으로, 헌혈에 참여한 경우 헌혈 전 검사(혈액형, 비중, 혈압, 체중, 체온, 검사) 및 헌혈 후 기본혈액검사(B형간염 항원, C형간염 항체, HIV, 검사, 해산증폭검사, T세포포집친화바이러스, 매독항체, 간기능검사, 총단백) 결과를 우편 또는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통보받을 수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번 헌혈을 통해 전북지역의 안정적인 혈액 수급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혈액 수급 안정화와 헌혈 참여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헌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보건소 의약관리팀(☎540-4544)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다함께 새롭고 특별한 전북으로'

전북특별자치도·시·군 공무원 노사 한마음대회 개최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19일 김제시 실내체육관에서 전북특별자치도·시·군 재직 공무원 노사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다함께 새롭고 특별한 전북으로'를 기치로 내건 이날 행사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권기봉 한국노총 전북본부 의장, 정성주 김제시장 및 양진호 전북자치단체공무직노조연맹 위원장과 조함원 가족 1,600여명이 참여했다. 공무원노사 한마음대회는 매년 전북특별자치도 및 각 시·군의 공무원노조와 그 가족들이 참여하는 행사로 한마음 경기대회, 장기자랑 등을 통해 공무원근로자들의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는 행사다. 특히 올해는 전북자치단체공무직노조연맹의 창립이

10주년 되는 해로 체육 경기, 축하 공연, 경품 추첨 행사 등 공무원근로자와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축사를 통해 "전북자치단체공무직노조연맹의 다양하고 적극적인 활동은 도와 시군정이 원활하게 운영

될 수 있게 하는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노사 화합을 바탕으로 전북자치도가 성공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양진호 공무직노조연맹위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출범에 따라 도·시·군 공무원근로자도 새로운 마음으로 노사 화합을 통해 전북발전의 일익을 담당하겠다"고 화답했다. /김재훈 기자



농어촌공 고창지사 임직원, 고창사랑기부금 기탁

한국농어촌공사 고창지사(지사장 임근춘)가 고창군에 임직원들이 모금한 고창사랑기부금 280만원을 기탁했다고 전했다. 한국농어촌공사 고창지사 임직원들은 평소 환경정화활동, 농촌 집 고쳐주기 등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참여해 왔으며 영농환경 개선과 환경관리에 기여해 왔다. 임근춘 고창지사장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한국농어촌공사 고창지사 임직원들의 고창 발전 염원을 담은 기부금을 기탁하게 되었다"며 "농어촌공사 고창지사 임직원들은 앞으로도 고창군의 농업과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심석섭 고창군수는 "평소 참여와 헌신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해주고 있는 고창지사 임직원분들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함께 하는 길, 평등으로 향하는 길... 정읍시, 제44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정읍시는 지난 19일 국민체육센터에서 '함께 하는 길, 평등으로 향하는 길'이라는 주제로 제44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화합·소통하는 기회를 만들고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한 장애인들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이학수 시장과 윤준병 국회의원, 시민 1,000여명 등이 참여해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행사는 시립국악단의 신명나는 사물놀이 공연으로 막을 올렸다. 기념식에서는 장애인도 존엄한 인간임을 확인하는 장애인 인권 헌장 낭독이 있었다. 이어 장애와 역경을 극복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장애극복

상을 5명에게 수여했고, 장애인복지증진에 헌신한 유공자 7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2부 행사에는 장애인 문화예술단체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들'의 공연(중창, 피아노연주, 난타, 미술 등)과 행운권 추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시는 전체인구의 10%가 장애인인 만큼 17개 복지시설·7개 단체들이 장애인을 돌보며, 안정된 생활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학수 시장은 "장애인과의 차별 없이 함께 살아가야 하는 시인 중심, 으뜸 정읍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너·나·우리 다같이 행복한 차별 없는 세상... 무주군, 장애인식개선 앞장

제44회 장애인의 날(4.20.)을 앞둔 지난 19일 무주군에서는 무주장애인종합복지관 강당을 비롯한 야외주차장 등 일원에서 기념식 등 장애인 인식개선 행사가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황인홍 무주군수와 무주군의회 이해양 의장, (사)전북직체장애인협회 무주군지회 이대수 회장을 비롯한 무주군에 등록된 장애인과 가족 등 3백여 명이 참석해 '장애인의 날'에 대한 의미를 새겼다.



이 자리에서 황인홍 무주군수는 "모두가 누리는 무주다운 복지 공동체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특히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에 힘써 여러분이 불편과 차별의 벽에 가로막히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는 마땅한 장애인 발굴 지원에 관심을 기울이는 한편, 시설과 재가장애인 여러분을 위한 맞춤형 지원에

도 마음을 쓸 것"이라며 "장애인 여러분의 이동권과 여가생활 보장 등 생활 밀착형 정책 실행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참석자들은 '장애인 노래경연대회'를 비롯해 편견 없는 모습 담긴 '자개 거울 만들기', '함께 하는 버스킹 공연(다들이 난타, 노래방)'을 통해 화합의 시간을 갖고 장애인 인식

실문조사에도 참여하는 등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무주군의 장애인 수는 3월 말 기준 총 2,377명으로 전체 인구의 10.2%를 차지하고 있으며 무주군은 이들의 생활 안정과 사회서비스 지원 일자리 지원 재할 및 자립 지원을 위해 올해 87억 4천여 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이를 기반으로 무주장애인복지관을 비롯한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의 프로그램 운영과 교육, 직업 활동, 거동불편 장애인 이동 등을 지원하게 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부안군, 제44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부안군은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지난 19일 부안 예술회관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부안군장애인연합회(회장 김중표)의 주관으로 진행된 이날 기념행사에는 권익현 부안군수, 부안군의회 김광수 의장과 의원 등 비롯한 각 기관·단체장, 장애인 및 가족, 자원봉사자, 군민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기념행사에서는 장애인의 권리와 복지증진에 기여한 부안읍 이기화님의 6명에게 국회의원 표창을, 김원철·홍병철·고석교님에게 도지사 표창을, 상사면 박원식님 외 11명에게 군수 표창을 수여하였다.



또한 장애인연합회에서 박영숙, 김지훈에게 공로패를 수여하였으며, 모범장애인에게 전달하는 복지성금은 정광연의 6명에게 전달되었다. 이날 기념식에서 권익현 부안군수는 축사를 통해 "장애를 이유로 차별과 불평을 겪지 않고 마땅히 누려야 할 자유와 권리를 보장 받아야 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그런 따뜻한 세상, 장애인의 차별받지 않는 세상이 되었음"한다 말하였고, 참석하신 여러분이 장애라는 약점을 특별함이 라는 강점으로 바꾸어 모든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에 말을 전했다. /부안=김정진 기자



남원 대강면 사석마을, 어르신 초대 경로잔치

남원시 대강면 사석마을에서는 지난 19일 지역 어르신들을 초대해 성대한 경로잔치를 벌였다. 이날 잔치에는 관내 150여명의 어르신들이 맛있는 음식을 드시고 정담을 나누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며, 상차림을 받은 어르신은 "외롭고 쓸쓸했는데 이렇게 진수성찬으로 차린 음식을 먹으니 힘이 난다. 잘 챙겨줘서 매우 고맙다"라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사석리 사촌 2마을 지영화 이장은 "추운 겨울을 지나 따뜻한 봄날 우리 어르신들을 모시고 경로잔치를 열게 되어 매우 기쁘며, 행복하고 건강하게 지내셨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이백면, 경로당에 구급상자 세트 지원

남원시 이백면·이백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관내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응급환자 발생 시 기초적인 응급처치를 통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경로당 24개소에 구급상자 세트를 이백 백제약국 약사로로부터 복용 지도를 받은 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많은 시간을 경로당에서 보내는 어르신들의 안전사고와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를 위해 추진되었으며, 진통제, 상처 처치용 연고, 감기약, 소화제 등 12종의 약품을 구입해 지원하면서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안동준 이백면장은 "구급약품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경로당을 이용하시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시, 스마트 귀농귀촌 청년창업 박람회 참여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24년 스마트 귀농귀촌 청년창업 박람회'에 참여해 맞춤형 상담과 귀농귀촌 지원정책 홍보에 나섰다. 특히 이번 박람회에서 김제시가 우수 지자체로 상을 수여해 주목을 받았다. 수원컨벤션센터 제2전시장에서 열린 귀농귀촌 청년창업 박람회는 연합뉴스와 농협이 주최했으며 청년농 육성 지원과 귀농귀촌 활성화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과 함께 청년들에게 창업과 성공적인 미래농업 기술,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했다. 이번 박람회는 (사)김제시귀농귀촌협의회 김태양 회장과 회원, 귀농귀촌팀 담당 공무원이 참여해 귀농창업의 열쇠 김제'라는 주제로 전시부스를 설치, 김제에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지원정책과 성공사례 등 1대1 맞춤형 상담을 실시,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김제=곽노태 기자